

민주 야권통합 오늘이 분수령

손학규·박지원 전격 회동 합의점 모색

단독 전대파, 전대 소집요구서 제출 주목

야권통합 방식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어온 민주당이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개최되는 당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원샷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선(先)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7일 밤, 전격 회동을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야권 통합 절충안에 다수 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원샷 통합 전당대회 개최 의견이 강하게 나타난 가운데 내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먼저 개최해 통합을 의결한 뒤,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1월 통합 정당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됐다.

이용섭 대변인은 "양쪽 모두가 주장하는 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다수 의원들이 호응했다. 손 대표도 마찬

가지다"라면서 "다만, 일부에서 선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손 대표가 공간을 넓혀가기로 한 만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7일 밤,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야권 통합 방식에 대해 합의점 도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야권 통합 방식에 이견을 나타냈던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가라앉고 야권 통합은 급류를 탈 전망이다.

하지만, 28일 오전까지 야권 통합의 절충안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야권 통합은 중대 위기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위원장 등이 이날 전당대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양수 전 의원은 "손 대표가 27일 까지 야권통합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단독전대를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소집요구서 제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도부도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답을 위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의 회동 결과에 따른 28일 오전의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야권 통합의 흐름을 결정짓는 전망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민주당 장병원 의원은 26일 오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타운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지역주민과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병원의 나라살림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6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린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 전 부지사 부부의 손을 치켜들며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지역민과 지지자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강운태 시장 "야권통합, 원샷전대 필요"

강운태 광주시장은 25일 야권 통합 논의와 관련해 "야권통합은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원샷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손학규 대표와 독자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한 발짝씩 양보해야 한다"며 "손 대표는 전당대회 날짜를 12월17일로 못박지 말고 이 이전에 손 대표를 포함한 대권 주자들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원샷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투트랙(민주당 독자전당대회 이후 통합전당대회) 통합의 로드맵을 버려야 한다"며 "투트랙 대안이면 독자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민주당 대표가 한달도 당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통합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지켜지지 않고 원샷 전당대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통합정당 명칭은 '민주당'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지도부-공천권 분리론 대두

한나라당이 해신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해신의 본질인 공천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천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당 지도부와 공천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도부-공천권 분리론"은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먼저 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특정 세력 주도의 밀실 공천이나 계파간 나눠먹기 공천을 방지하려면 지도부가 공천에 개입하지 말고 공정한 기구나 틀 속에서 '시스템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당 지도부 가운데 유승민·원

희룡·남경필 최고위원은 27일 지도부-공천권 분리론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당 공천개혁특위위원장 시절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천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어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지도부 5명 가운데 4명이 지도부-공천권 분리론에 찬성하는 셈이며, 홍준표 대표는 당내 여러 의견을 취합해 공천개혁안을 비롯한 당 해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통합을 보는 광주·전남 정치권 명암 정권교체 기대감 고조 지역 정치권 위축 우려

야권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

일단 야권 통합의 큰 흐름은 안중(안철수 바람)과 함께 그동안 '박근혜 대세론'에 묻혀있던 차기 대선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또한, 야권 통합과 연대가 현실화된다면 한나라당과의 1대1 구도가 형성되면서 차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사·예산·정책 소외와 18대 국회에서 미더어 관련법, 새해 예산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에서 거대 여당에 처참하게 밀리면서 확산됐던 무력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야권 통합'하면 (홍선·대선 승리)된다'는 희망과 함께 시민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 정치권에 확산되

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 통합에 대한 희망의 이면에는 지역 정치권의 초라한 현실도 자리 잡고 있다. 당장, 야권 통합을 이끄는 핵심 세력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인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출범할 통합 정당에서 지역 정치권이 여전히 변방에 머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 행보'는 지역 정치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의 모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야권 통합 논란에 대해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치적 처열함을 보이기보다 기득권에 기대며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정치권의 현실 안주는

정치적 역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기보다는 뒤따르는 현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야권 통합 추진 세력인 '혁신과 통합'에 참여하는 광주·전남 지역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당원 이거나 민주당 성향이라는 점에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광주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 365명 가운데 민주당원은 281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인사들은 야권 통합 기류에 편승, 혁신과 통합을 매개로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기는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변화를 이끌어왔던 광주·전남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야권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 정치권의 아쉬움도 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혁통, 시민통합당 결성 창준위 등록

친노(親盧)와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된 '혁신과 통합'(이하 혁통)이 24일 가칭 '시민통합당'을 결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했다.

서울 여의도 국민빌딩에서 열린 결성식에는 혁통뿐만 아니라 '진보통합시민회의',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의 대통합 추진세력 등 야권 통합 연석회의의 참가자들이 주요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창준위 대표에는 이용선 혁통 상임대표가 선출됐고, 사무총장에는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이재오, 오늘 총장서임 저자 사인회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은 자신의 정치철학을 담은 저서 '이재오의 정치철학'에 대한 저자 사인회를 28일 오후 2시 광주 총장서임에서 연다.

이 의원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삶과 정치역경, 그 속에서 느낀 정치철학과 자신이 그리는 미래의 정치상을 담담하게 적었다. 이 의원은 "내 마음속에 때와 때를 벗겨내고 싶었다. 나를 돌아보고,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싶었다"며 "내 삶을, 내 정치적 행위를 들여다보고 싶었고, 성찰의 작은 자락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신임대표에 홍세화씨

진보신당 신임 대표에 홍세화 씨가 선출됐다.

홍 신임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인터넷과 현장투표로 진행된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해 98.4%의 높은 찬성률로 당선됐다.

홍 신임대표는 "당이 어려운 시기지만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은 2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정의화 광주명예시민 자격 박탈"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4선 의원인 한나라당 정의화 부의장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때 총대를 멘 것은 내년 총선 공천티켓을 따기 위한 공천역선"이라며 "2008년 영·호남 화합과 교류 증진에 기여한 이유로 정 부의장에게 수여된 광주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정 부의장이 가진 광주명예시민증은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주 역사에 부끄러운 딱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신청 접수

▶사업내용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SMP가격과 인증서 판매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 및 RPS기관에 판매하는 발전 시스템

인증서 판매가격: 입찰을 통하여 결정

▶신청대상: 건물옥상 및 공장지붕,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를 소유한 자

▶수익성: 건설 투자비 회수는 약 8~9년, 수익은 건설비용의 약 2배 창출

▶건설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사업허가~준공까지)

태양광 주택
3kw기준 800만원으로 시공가능!!

내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설치효과 월 평균 92,49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5,11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설치장소: 주택, 상가, 마을회관, 공장 등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www.jwsolar.co.kr

상담문의 062)268-5118 017-310-4119 010-9435-044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넘버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2011년 신제품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기술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기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주소(D) 대산프리모 50m

대산프리모가발